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마 5:37)

# 기독교일보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10, 2011 Vol.279



##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청년부 Acts가 주최한 2011 청년들을 위한 비전 페스티벌이 지난 6일 열렸다. 강사로 메시지를 전한 민승배 목사(토렌스조은교회 청년부 담당)는 "크리스천 청년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비전 페스티벌은 오는 2월 13일, 20일, 27일, 2월동안 주말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페스티벌에는 은혜로운 찬양시간과 중창 연주, 스킷 드라마, 워십댄스 등 청년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렌스조은교회 310-370-5500

(지재일 기자)

## 십자가에 걸린 사랑의 노래

십자가의 깊은 비밀에 전율하며 갈증이 나는 이른 아침마다 유리컵에 작은 바다를 담고 사랑의 세라머니를 위해 하늘을 향해 피리를 부는

십자가에서 내리쬐는 맑은 햇살 지난날의 모든 애증을 씻어내고 막혔던 체증을 뚫어 주듯 알알이 아름다운 파도가 되어 이슬 되어 내 심령 깊숙이 채운다

높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깊고도 오묘한 주님의 은총 이른 아침 허공을 나는 갈매기가 희망을 안고 떠오르는 햇살에 반사되듯 해맑은 찬송이 되고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과거를 잊어버리도록 하신 사람이요 미래를 모르도록 하신 비밀이기에 십자가에 걸린 사랑의 노래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청수(淸水)처럼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가슴에 안고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려 영혼을 밝혀 은혜의 꽃을 피운다

마음을 밝혀 감사의 꽃을 피운다

## 오바마, "지난 2년 임기동안 신앙 더 깊어져"

지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열린 제 59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미국 교계지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란 배경과 어떻게 기독교 신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엘 헌트 목사(올랜드 노스랜드교회)와 T.D.제이크 목사(달라스 포러스하우스) 등이 간헐적으로 오피스에 방문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2년 임기 기간 동안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밝히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 조찬기도회에서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배경 등 신앙간증

앙을 하게 됐는지 등 개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어머니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자신을 교회로 데려갔을 뿐 교회를 거의 간 적이 없다.

평생 한번 밖에 만나본 적이 없는 생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신앙을 받아들인 계기로 "시카고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종교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고백했다.

기도제목으로 그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인내심과 겸손을 주시도록' 기도

면서 매일 아침 힘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족과 국민을 보살펴 주시고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조찬기도회에는 140개국을 대표하는 대사,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유의 유머감각은 조찬기도회에도 빠지지 않았다.

두 딸의 영적 어머니 케이 월슨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던 그녀는 캠페인 기간 케이블 TV에서 (나에 대한) 공격성 보도가 시작된 후 하루에 8번, 9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가 많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 기도 네트워크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세계 복음연맹(WEA) 제프 터니클 리프는 "미국 정부 내 초당파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상적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앙과 헌신을 들을 수 있었던 가슴이 따듯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미국 목회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퓨리서치)는 '미국 목회자 10명 중 4명 만 오바마 대통령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 신앙을 둘러싼 미국 국민의 오해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California LA 동부 포모나시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랜드교회를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제자훈련과 영성훈련(기도훈련)의 두 날개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현 담임목사 최병수 목사님께서 세대교체를 위해 오는 2011년 말로 은퇴하시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 미국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 5년 이상 Full Time 목회한 자
  - 미국장로교(PCA) 노회 가입이 가능한 목사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하신 분
  -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제출마감 및 주소**
- 주후 2011년 3월 15(화)까지 서류접수를 마감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담임목사청빙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아래의 주소로 이력서와 기타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 제 출 서 류**
- 신청서(Application)
  - 이력서 1통 (가족사진 첨부)
  - 최근 설교2편 (CD, DVD 혹은 Tape)
  -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설교 권장)
  - 자기 소개서(목회비전, 성장배경, 자신의 장·단점 - 한, 영)
  - 추천인 3인

### 기 타

**인랜드교회 청빙위원회**  
P.O. BOX 3993 Pomona, CA 91769-3993  
인랜드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장로  
문의전화 T.909-717-0909

**인랜드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장로**

▶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 성결포럼서 '북한 선교의 전망과 방향성' 논해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

# 북한 선교 "모든 방법 동원해서 만나고 교류해야"

긴장된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 선교와 지원 그레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는가.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는 '역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다.

지난 7일 임마누엘선교회교회에서 개최된 제 24회 성결포럼에서 강사로 초청된 박영환 교수는 '북한 선교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 발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영환 교수는 "북한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일부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만나야 통할 수 있고,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기독교

박영환 교수는 북한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내제한 나라로, 남

은 북한을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남한기독교가 북한에 보여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가 앞으로도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와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마땅한 대응을 해야겠지만, 기독교는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함없이 북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환 교수는 "북한의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대북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선교나 대북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서로 질타만 하고 있는 모습은, 남한의 분열을 바라는 북한

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외교사' 역할로

박영환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비핵과 개방'의 문제이며, 이는 남과 북의 물러설 수 없는 병행론이라고 했다. 그는 "남한 기독교와 교회는 10년 넘게 변함없는 대북입장을 밝히며 대북지원과 함께 끊임없이 만남과 신뢰를 쌓았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남한 기독교는 남과 북에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서로의 장애물 제거에 신뢰를 심고 이해하며 화해하는 사역에 적극적인 홍보와 외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장애물-핵문제, 남

한 기독교가 '디딤돌'

독일은 통일 이전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보유했을 때 핵 무장 보다는 핵 없는 국가를 선언함으로써 주변국가로부터 인정과 협력을 불러냈다.

또한 주독미군 주둔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박영환 교수는 "핵문제로 인한 남한 내 불안은 독일의 통일이 사례를 통해 극복해 가야하며, 남한기독교의 디딤돌 역할이 필요하다"며 "남한기독교는 대북정책의 신중성과 체험적 대북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정하고 정부가 통합적 대북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고,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남한기독교는 대북

지원과 체제안전에 보장과 협력을 가능한 만들어 주되 대북강경 입장들도 이해하며 세계교회협의회의와 작업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설명하며, 남과 북의 상생공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논찬에 나선 김수철 목사(소중환사람들)는 "북한 정권은 미워하되 주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동포들의 장점을 살려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자주 만나다보면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며 "해외동포들이 북한선교에 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러 논찬한 김병호 목사(햇볕

교회)는 "총체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동감한다"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동안 방치되는 동포들의 인권,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비겁함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갖도록 알려야 한다"며 "특별히 미국에 들어온 북한 동포들이 이민자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케어하는 문제는 이민교회가 담당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애 ESL과정,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기술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명씩, 소액 변호, 워킹퍼미트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남가주한인목사회 제3회 임원회 열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제3회 임원회가 지난 7일 JI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임원회는 1부 경건회와 2부 회의시간으로 진행됐다.

경건회 시간에는 김향안 목사(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가 초청돼 메시지를 전했다. 김향안 목사

는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로서 전도특공대, 알곡전도 등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도 정작 어머니와 형제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었다"며 "아침 7시 어머니께 문안 전화를 드리는 등 극진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김 목

사는 "목사회 여러가지 계획 가운데 영적 전진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부 회의시간에는 윤석진 목사(연세중앙교회)의 집회에 대해 논의했다. 박효우 목사는 "3월은 평신도 대각성집회로, 6월에는 목회

자 세미나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목회자와 사모, 평신도들을 초청해 함께 은혜받고 부흥의 초석을 다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는 클레어 김 변호사, 트리니티미디어(대표 피터 박), 스튜디오 불(대표 스카이 엄) 한인기업 대표들도 참석했다. 클레어김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으로 목회자 이민, 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작은교회 지원사업을 진행중인 트리니티미디어는 이날 추상호 목사(성복교회)와 김종태 목사(쑤대교회)에게 각각 마이크를 전달했으며, 스튜디오 불은 목사회와 함께 영정사진 등 무료 촬영을 진행한다. 문의)213-422-9191(남가주한인목사회)

〈지재일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위원 : 박해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형소 허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배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강직한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LL.M(국제법)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찰학 및 법학 학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연방법원 및 세법상담, 변호사  
미주한인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미주 상공인 총 연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t Brothers 근무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노동법/인권/해결

####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관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이창건 초대회장, "한인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

# 7만 한인 대표하는 LA북부 한인회 창립돼

“서영석 라크레센타 시의원을 배출하는데 맨발로 뛰었던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LA 북부 한인회가 창립하게 됐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인화를 도모하여 주류사회에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북부한인회 이창건 초대회장의 취임사 내용이다. 지난 5일 라크레센타에 위치한 안디옥장로교회(담임 지윤성 목사)에서 창립회가 열려 Ara Najarian 글렌데



LA북부한인회 이창건 초대회장.

일 시장, 미주총연 서남부연합회 노명수 회장, 서영석 라크레센타 시의원 등 미 정치 인사 및 한인 사회 지도자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건 초대회장은 “LA북부 한인회를 통해 정치적 신장과 상권 및 교육신장을 위해 임원과 힘을 쓸 것”이라며 “LA중심에 위치한 한인타운과 함께 LA북부지역에도 제2의 한인타운을 건설할 것을 꿈꾸며 한인 2세 리더 발굴과 한인 권익 신장 및 주류사회와 더

욱 화합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A북부한인회는 앞으로 글렌데일, 라크레센타, 라카나다, 파사데나 등 210만 프 리웨이를 축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LA 북부지역은 최근 3년간 산불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주민들에게 대피 및 피해상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장구가 없어 소수 민족들을 위한 예산과 배넛을 찾

기 위해 중심부 역할을 할 단체가 절실히 필요해 지역 한인 지도자들이 한인회 창립에 뜻을 모으게 됐다. LA북부지역은 약60만 인구 중 10%가 넘는 한인 인구가 약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LA북부한인회 박병진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회는 황해경 교수의 애국가 제창, 모종태 창립준비위원장 경과보고, 지윤성 목사의 기도, 정치 지도자들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재일 기자)

## 은퇴 장로가 할 일은 '더욱 교회를 세우는 것'

### 드림교회 유완모 장로, 한 교회에서 28년 섬기고 은퇴 찬하예배 드려

한 교회의 1호 장로로 임직 받아 28년을 섬기고 은퇴하며 남긴 말 “더욱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은퇴 소감에서 보듯 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한 드림교회 유완모 장로의 은퇴 찬하예배가 지난 6일(주일)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본당에서 드

“마땅히 섬기는 자가 축하 받으니 송구할 뿐”이라고 말문을 연 드림교회 유완모 장로는 은퇴 장로로서 몽골에 교회는 세우는 것, 고향인 북한에 아버지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드림교회 2~3차 건축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 등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하고, 은퇴하고도 교회 세우는 일 밖에 모르는 유완모 장로의 당부 의 말 또한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유 장로는 “교회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의 통로”라며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권면했다.

또한 “교회 내 여러 당파가 생기기 보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당원’들만 되어서 그런 전통을 세우고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덧붙여 말했다.

유완모 장로의 은퇴 찬하예배에 이어 권사 및 집사 임직식도 아울러 개최됐으며 김길수, 남상길, 이승덕, 차성용 등 권사 4명과 정병란 등 집사 1명이 각각 임직했다. <박상미 기자>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가 유완모 은퇴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려졌다. 유완모 장로는 드림교회의 전신인 글렌데일연합장로교회 1호 장로로서 현재 드림교회가 미국교회인 홀리스톤연합장로교회(Pasadena Holliston United Methodist Church)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즐거워 한 교회에서만 우직하게 섬겨온 그의 발자취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하의 자리였다.

라고 했다. 그것이 유 장로에게 맡겨진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로는 고향인 북한을 생각하며 잠시 북한전 감정을 추스린 후 “아버지가 황해도에 죽전 감리교회를 세우셨다. 생전에 고향을 다시 갈수만 있다면 바로 그곳에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평생을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

## 참혹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북한 탈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빈곤실상과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북한 탈출(Escaping North Korea)의 저자 마이크 김 씨가 4일 한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씨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재정기획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중, 지난 2003년에 중국을 여행하며 가정교회에서 만난 2명의 탈북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이크 김씨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림과 성폭력 등 충격적인 실상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기독교인으로서 평소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던 김 씨는 “중국 여행 후 2003년부터 4년간 중국, 북한 국경에 머물며 ‘크로싱 보더스(Crossing Borders)’라는



(좌)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그레이스 유, (우) 북한 탈출의 저자 마이크 김.

기독교 NGO단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빈곤, 성 학대, 종교탄압 등을 주제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탈출은 김 씨가 3년간 150여 명의 탈북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다.

이어 김 씨는 “할리우드 최고 기획사 중 하나인 William Morris and Endeavor의 주도에 북한 탈출을 영화로 제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영화를 통해 세계에 북한 이슈를 알려 탈북자들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지난 2008년부터 T.H.I.N.K(Topple Hunger in North Korea)컨퍼런스를 통해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커뮤니티에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마이크 김씨는 6일(주일) 오후 Giant Robot2에서 저자사인회를 가지기도 했다.

(지재일 기자)

## 미주 제1기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은 50만 명에게 읽힌 책입니다. 이제는 이메일 사모 혼자서 다 강의하기가 벅찰 만큼 현상이 넘습니다! 당신도 강사가 되십시오!



**이애실 사모님 프로필**  
 -이승근 목사(전, 시카고 그리스도교회 담임), 베링랜드 방법교회 담임, (현 서울 다대교회 담임) 피 아나  
 -성경 성경사역원 원장  
 -공로훈 수여 대표  
 -저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 『어? 히브리어 들어지네!』, 『구약읽기 4부(48)』 등 다수

**전문강사스쿨 학생모집 요강**

현재 한국 2010학년도 전강스쿨에서 215명의 학생이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에서도 2011학년도 전강스쿨이 시작됩니다. 미주 최초로 시카고와 LA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사역할 필드는 엄청나게 열려있습니다. 당신을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강사로 초청합니다. 당신의 생애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 원서접수, 입학시험 및 등록 : 2011년 1월 12일~2월 12일 (www.ahaja.org)
- 지원자격 : 이메일 사모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수강(CD, 인터넷도 가능)한 후 인도자컨퍼런스 수강한 재미수강자도 조건부 입학됨)
- 수업기간 : 시카고 2011년 2월 13일(주일) 오후 5시 입학식~7월30일 남가주 2011년 2월 21일(월) 오전 9시 입학식~7월23일
- 수업시간 및 장소 : 시카고 오후 7시~11시 헬로십 교회(김영근 목사) 남가주 오전 9시~오후 4시 은혜한인 교회(한기홍 목사)
- 회비 : 전학기 월 \$200.00x6 (\$1,200.00)

**<커리큘럼>**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초빙교수 강의는 사이버로 진행 됩니다.

시카고 일정	남가주 일정	내 용
2월 13~18일	2월 21~24일	입학식 및 수업 / 이메일 사모 직강 (OTEL 1-6, OTML 1-6)
2월 20~24일	2월 25~27일	실제 체험성경강 훈련 -> 전문강사와 하는 인턴십 (구약 1-6과)
3월 13~18일	3월 7~11일	이메일 사모 직강 (OTEL 7~12, OTML 7~12)
3월 18일~4월	3월 12일~4월	<실제성 훈련, OTEL & OTML 강의 습득, 초빙교수 강의, Paper, Reading, 중간고사>
5월 22~27일	5월 2~6일 9~11일	이메일 사모 직강 (수업진행 NTEL 1-12, NTML 1-12 완성)
6월	6월	<실제성 훈련, NTEL & NTML 강의 습득, 초빙교수 강의, Paper, Reading, 졸업시험 & 논문>
7월 24~30일	7월 17~23일	마무리 강의 코칭 / MT 및 졸업식

•문의전화 : 미주본부 847-296-4555 (정승호 목사) / 시카고 410-978-8882 (강신산 간사) 남가주 714-743-3807 (이진환 목사)


**성터 성경사역원**  
 미주본부 411 Kingston Ct. MI Prospect, IL 60056  
 www.ahaja.org email : ksinsan@hanmail.net

# '기도'로 연합해 평신도가 앞장서는 지역복음화

## 인터뷰

###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 회장 손찬우 집사

최근 한국세계선교협회(KWMA)는 현재 해외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가 모두 169개국 22,014명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선교사들을 각국에 파송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 21세기의 선교란 목회자 혹은 선교사 등 교역자들뿐 아니

라 평신도들과 함께 삶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 본지는 2011년 특별기획 [평신도 선교시대]를 시작한다. 그 첫번째로 최근 오렌지카운티기독교

전도회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손찬우 집사를 만났다. 인터뷰는 전도회연합회 소개와 사역, 손 집사의 개인 간증을 담았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평신도 선교시대, 평신도 전도 연합회의 회장이 되었다. 취임한 소감은?**

회장을 맡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스스로 보기에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동역해 주셔야만 할 수 있으므로 열심히 하겠다. 기도하는 연합회, 행사를 위시하는 행사 위주의 연합회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연합회'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다.

**-평신도 전도연합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도연합회라고 해서 반드시 '전도'만을 목적을 두고 사역하지 않는다. 큰 차원의 틀에서 전도를 위한 평신도 사역도 진행한다. 그것이 바로 450여 오렌지카운티지역 교회들이 서로 친목하고 화합하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면 더 큰 차원의 전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매월 열리는 조찬기도회는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공물을 구할 때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첫 조찬기도회가 2월 5일(토) 아침 7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연합회로서 먼저 하나 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연합을 위**

**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찬기도회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합행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7월에는 한국의 예수마을교회 담임장학일 목사님을 초청한 말씀찬치를 개최한다. 예수마을교회는 그 교회로 인해 주변이 정말 예수마을이 되는 사례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오렌지카운티가 '예수마을'화 되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성가합창제를 빼놓을 수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찬양제이다. 벌써부터 올해 합창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정도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욱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로 전도연합회의 31대 회장님이 되었다.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창립된 배경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흔히 있는 남전도회연합회로 조그맣게 시작됐다. 1982년도 조직된 것이다. 1대 회장이 양문국 목사님인데, 물론 당시에는 평신도였다. 지금은 목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손찬우 집사를 최근 그가 운영중인 한식당 '맛있는 밥상'에서 만났다.

에서 은퇴하시고 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신다. 그 후 1998년도에 성별을 지칭하는 말이 빠지면서 남녀전도연합회, 평신도를 대표할 예정이었다. 올해 30년사 기념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두드러질 만한 성과보다는 성별과 지역을 넘어 평신도들의 화합과 이를 통한 전도를 위해 꾸준히 업데이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

**었나?** 본인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할머니가 절을 운영하시고 고모님은 스님일 정도로 불교

골수분자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때 친구를 따라서 주일학교라도 한번 가볼 만도 한데 내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불교경전을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하는 놀이도 어머니와 함께 염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현재 나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멀리 떨어진 일이었다. 그러다가 스무 살 되던 해였다. 동네에서 아주 말씀을 많이 부리던 선배가 있었다. 그 형이 갑자기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는 일이 벌어졌었다. 다들 의아해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이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됐다. 도대체 무엇이 말썽 많은 형을 바꾸어 놓았는지, 동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그로 인해 동네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쟁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고 한 마을이 한 동네로 점점 퍼져갔다. 그때 전도가 되었다.

살아오면서 물론 옆길로 빠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컸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다. 그러다 거짓말처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렷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하셨다. 당시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회생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소원이 우리 가정이 다시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보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쏟아지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이다.

**-한식당 '맛있는 밥상'을 운영하는데, 평신도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나?**

고객들에게 먹는 음식을 파는 주인으로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운영 마인드이다. 캐터링이나 도시락도 함께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 부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요즘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있다.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러 오신다. 경영을 위한 또 다른 마음은 항상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청지기 자세로 출발하는 것이다.

**-'맛있는 밥상'이란 이름처럼 전도연합회가 연합과 부흥을 위한 은혜의 밥상을 잘 마련해 달라. 2011년 희망찬 포부가 있다**

**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로 출발한다. 모든 임원이 같은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보다 삶으로 행동으로 '먼저' 하는 전도연합회가 되겠다.

(지재일 기자)

## 7주년 돌로스선교교회 '금홍'사역 시작

2월 6일(주일)로 창립 7주년을 맞이한 돌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컴패션 선데이(Compassion Sunday)'를 지정하고 섬김 사역을 확대, 시작했다.

지난 7년 동안 교회의 기분을 다지는 일에 주력한 돌로스선교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한다. 황의정 목사는 "7주년을 맞이하며 희망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어린 이들을 품는 마음을 주셨다"며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금홍의 교회로 거듭나

기 원한다"고 전했다. 예배 시간 컴패션에 대한 소개 영상을 접한 성도들은 예배가 마친 후 컴패션 파견 봉사자의 안내로 후원약정을 하는 등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다.

돌로스선교교회는 성경적 신앙과 삶을 가르치는 '학습공동체', 제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치유하는 '치유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섬김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명공동체'라는 다섯가지 비전으로 지난 2004년 2월 창립예배를 드렸다.

(박삼미 기자)



창립을 기념해 금홍사역을 좀 더 확대하는 한편, 컴패션 선데이로 정해 컴패션 아동결연 후원약정을 실시했다. ©박삼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Trinity Media Solution** **트리니티 미디어**

예배를 위한 음향, 영상, 조명

**213-483-6500**  
 E-mail: sales@trinitymediasolution.com  
 Address: 3130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Website: www.trinitymediasolution.com | Fax: 213-483-6501

#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생명을 살립니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천국’이 아닐까? 천국소망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선언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생명이기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일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같은 인생의 마지막 중대사인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마무리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평화롭고 존엄성 있는 값진 죽음(Well-dying)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있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바로 그곳.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신생단체이나, 웰다잉(Well-dying)을 전제한 웰빙(Well-being)과 웰에이징(Well-aging)을 주창하는 이곳의 사업과 비전은 결코 간단치 않다.

3여 년 전 소망소사이어티를 설립한 유분자 이사장은 한인 간호사계에 대대적으로 41년간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다. 병원에서 접했던 수많은 죽음을 통해 준비하는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 신앙인과 비 신앙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말은 죽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  
©박상미 기자

삶에는 죽음이 따라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죽음은 살아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쓰인 화살처럼 즐기차게 달려가는데 이 중요한 죽음을 그냥 당해야 할까요?”

반대로 ‘맞이하는 죽음’을 생각하니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웰 에이징이 되고, 웰 에이징은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웰빙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자, 죽음을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77세, 여성은 83세라고 합니다. 퇴직 전까지 바쁘게 사느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가보지 못한 곳을 다 가보고도 그 남은 시간은 상당히 길지요. 그러한 연장자들에게 무료함이 찾아오고 이후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준비가 없었으니 죽음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죠. 자식들에게도 돈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나중에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더 좋은 간호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닥쳐온 죽음의 준비라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문화가운데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안장될 묘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일 년에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할 묘지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장례식을 준비한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죽음에 대한 준비인 것이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로즈힐에 모셨습니다. 일 년에 한번정도 겨우 가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나 손주들이 과연 얼마나 자주 묘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다면 늘어나는 묘지들은 결국 공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장례식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차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만 해도 될 일을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그렇게 합니다. 한국인들의 인식은 마치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소망소사이어티가 시작되었다. 웰다잉을 위해 웰에이징과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 유언서 쓰기, 장기 및 시신 기증 안내, 장례절차 간소화, 호스피스 교육, 기부문화 확산, 연장자들을 위한 문화예수 활동과 안내, 웰에이징을 위한 교육, 환자-사별 가족을 위한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히 소망소사이어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단순히 죽음을 위해 쓰일 돈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자는 이유에서다. 현재 소망소사이어티는 구호단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에 소망 우물을 파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이들의 기부와 동참으로, 우물을 파기위해 3천불의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00호 우물을 파는 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죽음을 준비하자는 것은 결국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값진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값지고 존엄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치 자신은 ‘창호지에 작은 바늘 하나를 끼워 넣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디작은 밑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소망의 나무를 심는 중이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들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연장자나 젊은이나 예외가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웰다잉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때 웰에이징,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망의 비전은 다음세대에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소망의 동산, 소망의 숲을 보게 되겠지요.” **소망소사이어티 : 562) 977-4580**

(박상미 기자)

# “잘 준비된 이별은 남은 삶도 아름답게 한다”

이민사회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이 지난 7일 마가교회에서 개최됐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서동성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서동성 변호사는 ‘재산 상속에 따른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뒤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자녀를 비롯한 주변이 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맥을 짚어줬다.

그는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법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했다.

## 소망소사이어티, 이민 1세대 대상 ‘죽음 준비 교육’ 정기세미나 개최

“갑작스런 죽음 대비해 평소 애차근처 준비해야 이어 박해수 교육부장(드림교회 사모)이 나서 ‘행복한 마무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서두에서, 한 일본인 의사가 쓴 저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리스트 중에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이웃들에게 베풀지 않고 살아왔던 것” 등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육부장은 “이민 100년을 넘긴 한인사회도 이제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사

회’로 접어들었다”며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Well-Being) 문화가 이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죽음이 반드시 노인세대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젊은이는 죽음보다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노인은 자주 죽음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노인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죽음 준비를 통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법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했다.

“죽음 준비를 통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지금 하나씩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잘 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서전 쓰기, 죽음 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죽음 준비를 위한 특강, 소망유언서(유언장) 작성,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죽음에 대해 알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상미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 영주권 수속 \$600
- 시민권 수속 \$100
- 가족초청 \$190
- 이혼변경 \$290
- 공증 \$10

20년을 걸은 정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면역,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번호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 이민신학 학술세미나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 (연목회) 에서 오랫동안 이민신학을 연구해 오신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박사를 모시고 다음과 같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2월 21일 오전 10:30**

◇ **장 소: 예담교회 (213) 369-9191**  
1640 Corova St, LA CA 90007 (워싱턴+벌론 부근)

◇ **강 사: 오상철 박사**

◇ **주 제: 이민목회의 상황화와 사역적인 대안**  
(행사후 오대산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의 : 정요한 목사 (213) 422-9191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 (회장 김영대 목사)**  
후원 : 남가주 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OC교협, OC목사회, 남가주 연세대 신과동교회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2월 13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 전세계 한민족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베이지역 소수민족을 초청해 선교보고 시간을 갖고 한인 교회가 협력하는 2011 One Voice가 1월 29일에 Shannon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2011년 워싱턴주 한미국가조찬 기도회(회장 이상진 장로)가 지난 5일 웨드워드웨이제일장로교회(담임 구자경 목사)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워싱턴주 한미국가조찬 기도회는 '여호와와 형통을 내가 보리라'라는 주제로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과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세계경제 변화와 민족화합, 세계선교를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이날 설교는 워싱턴주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지도위원인 이형석 목사(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역대하 7:14)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한반도가 위기 가운데 있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며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기독교는 6.25 동란이후 혼란속에서도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을 일으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기적을 나타내고 민족에게 소망을

#### 2011년 워싱턴주 한미국가조찬 기도회 성료

찾지만, 지금의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교회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국의 국민 화합과 안정, 경제의 번영, 이대통령과 정부내각 지도자를 위해 ▲미국의 부흥과 화합, 정치경제의 도약, 오바마 미 대통령을 위해 ▲한국 선교사의 세계선교 역할, 탈북자를 위한 도움, 복음으로 평화통일 ▲서북미와 미주한인동포 사회의 화합과 부흥, 교회의 연합화 부흥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1968년 제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2회째를 맞고 있으며 워싱턴주 한미 국가 조찬기도회는 올해가 6회째를 맞고 있다. 지회로는 본국 내 16개 지회를 갖고 있으며 해외에는 북가주 지회를 비롯해 워싱턴주 지회, 남가주지회, 페루 지회, 뉴욕지회, 일리노이주지회, 워싱턴D.C지회, 캐나다동부지회, 일본 오사카지회 등 11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 뉴비전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및 담임 목사 취임예배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는 2월 6일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30주년 감사예배에서 원로목사인 이지훈 원로목사 부부가 참석했고 3대목사인 현 지구총교회 담임 이재혁 목사와 교육목사였던 현휴스턴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담임목사의 영상축하메세지가 있었고 슬라이드영상을 통해서 지난 30주년의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회 25년 이상근속하신 43명의 교인들에게 꽃다발과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진수목사는 마태복음 28:18-20절의 말씀으로 '제자삼으라'는 제목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교회가 '예수제자 삼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설교했다.

또 오후 5시의 취임예배에는 침례교단, 이웃 교회 및 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해 담임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정훈 선임목사의 사회로 남침례교 가주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는 2월 6일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총회 선교사 김송식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손원배 목사가 성경봉독,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의 박성근 목사가 설교를 전한 후 서약식을 진행했고 원로목사인 이지훈목사와 콩코드침례교회 길영환 목사가 권면사를, 또 현 산호제교회협의회회장인 김근제 목사와 밀피타스 시장 Jose Esteves 씨의 축사에 이어 현 지구총교회 담임 이재혁 목사와 휴스턴서울침례교회 담임 최영기 목사, 베넬

한인교회 손인식목사가 영상축사를 전했다.

그리고 침례교회협의회장 홍흥산 목사가 축하패를 전달하고, 남침례교 가주총회 선교사 김송식 목사가 30주년 축하장을 증정했다.

이진수 담임목사의 취임사가 이어졌고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증경총회장인 조호준목사의 축사로 예배를 마쳤다. 특히 이날 예배에 이진수목사가 지난 11년간 시무했던 데이비스 한인

교회교인들이 참석하여 이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진수목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부임 후 지금까지 자신을 환영해준 뉴비전교회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주위에서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사역에 동참한 주위 가족, 친구, 동역자 및 데이비스한인교회 교인들께 감사를 전했다.

또 "30년 후 자신의 사역이 마칠 때 사람들이 "그는 주의 종이였다"라고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요한복음 3:30절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비전교회는 2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Silk Wave Mission 대표 김진영 터키 선교사를 초청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4-6일까지 베넬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를 초청해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한다. <임형진 기자>

### SF교협, 올해말 김동원 목사 초청 연합예배 개최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회연합회 정기 월례회가 8일에 구세군상향교회(오관근 사관)에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회연합회 정기 월례회가 8일에 구세군상향교회(오관근 사관)에서 열렸다.

1부 순서는 김광선 목사(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 회장, SF복음장로교회)가 사회를, 김동원 목사(은혜장로교회)가 기도를 맡고 오관근 사관이 설교를 전했다.

오관근 사관은 단 9:1-3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전심

로 기도한 사람들이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은 늙은 나이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약속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약속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찾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관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맞이하고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한다. 샌프란시스코 각 교회마다 약속이 풍성이 이뤄지는 축복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사역보고에서 김광선 목사는 "성탄절연합예배 헌금으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노인회, 나머지 반은 홈리스 사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올해 부활아침예배에 각 교회에서 참여하는 연합합창단을 구성해 보자는 안건이 나왔다. 메시야 합창단, 장로 합창단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의견에 대해 임원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회연합

회는 올해 12월 초에 김동원 목사를 초청해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스라엘 지리학 주제로 하루나 일박이일 동안 현역 또는 원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자 의견이 나와, 세미나 주제나 세미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나 목회자 가족을 위해 교회연합회 복지부(부장 이동학 목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임원진은 북가주한인 의사협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의 손길을 찾기로 했다. <임형진 기자>

## 해외한인장로회 벨엘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오레곤주 포트랜드 소재 벨엘장로교회(해외한인장로회 - KPCA)에서는 제5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하기 원합니다. 본교회는 예배, 찬양, 선교, 양육 및 2세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벨엘교회 청빙위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봉 장로 : H 503 491 3216, C 503 705 4720  
\* 이현우 집사 : 503 223 0504, email: abrahamlee4444@yahoo.com

#### 자 격

- 장로 신학대학 학위자 (Master of Divinity 이상)
-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 가입이 가능한자
- 담임목회 5년이상 유경험자 (선교사역 포함)
- 영주권, 시민권 소유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자
- 한국어 및 영어 소통 가능한자
- 연령: 35 - 50세 이하

#### 제 출 서 류

1. 이력서 1통
  2. 최종 학력 증명서 1통
  3.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4. 최근 3개월 이내 설교집 (CD / DVD) 2매
  5. 본인 및 가족소개 (가족사진 2매)
  6. 신앙고백 및 목회비전서 각 1통
  7. 목회자 추천서 2통 (필봉)
  8. 사모 자필 추천서 1통
- 제출된 서류는 원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마감 일자: 2011년 3월 31일 까지입니다.  
- 선정된 분은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이동희

# 교통사고 디스크·좌골신경통 전문

최첨단 의료기기의 정확한 검사와 최신 무중력 감압치료의 확실한 효과!

## 진료안내

- 교통사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시는 분)
- 요통, 신경통, 관절염
- 좌골 신경통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재발되시는분)
- 오십견 및 각종 통증
- 전립선 비대, 교통사고 후유증
- 목, 허리 디스크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디스크 수술 후 재발환자

메디케어

환영

각종보험



17년 경력의 한의사 겸 척추신경 의사  
원장 이동희 박사

최신 무중력 감압 치료기 DRX-9000

목, 허리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사고나 충격 또는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인해 빠져 나오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되면서 밀려나온 디스크가 주위의 척추신경 및 좌골 신경을 누르므로 엉치로 부터 허벅지, 다리, 발가락까지 통증과 함께 저리고 땅기며 심하면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퇴행성 디스크는 허리통증은 거의 못느끼고 좌골신경의 통증이 극심한 경우가 많음) 또한 허리디스크가 만성화되면 신경전달이 방해받아 척추신경과 연결되어있는 전립선, 방광, 대장, 성욕감퇴, 발기불능, 무릎관절염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목 디스크가 만성화되면 백내장, 녹내장, 시력쇠퇴, 청각쇠퇴, 갑상선, 고혈압, 불면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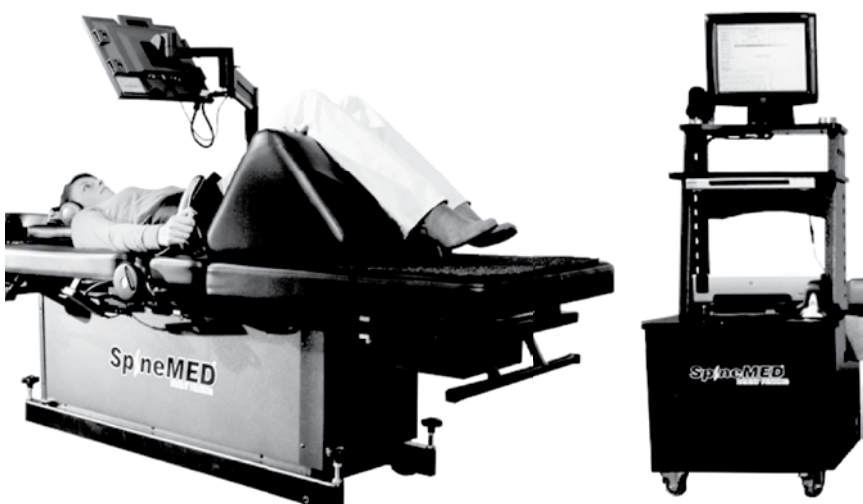
척추신경의사 초빙  
이력서 송부바람  
Fax(213)383-0019

## 수술없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 세계최신 무중력 감압치료

세계 최초로 발명(세계특허)되어 한국, 일본,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수출되어 수많은 척추환자들에게 통증없는 편안한 삶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무중력 감압치료기 (본 병원에 3대 최다 보유)

※ 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으로 수년간 월체어 또는 보행기에 의지하여 고통속에서 생활하시던 많은 환자분들께서 "최신 무중력감압치료" 후 편안하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저희 의료진들의 큰기쁨입니다.



최신 무중력 감압치료기 Spine MED

## 이동희 척추전문병원의 치료법이 타 병원과 다른점

이동희 척추 전문병원에서는 사고나 파열 또는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문제를 "세계 최신 무중력 감압 치료기"(LA에 몇 안되는 고가의 의료기로서 이동희 척추전문병원에만 3대 보유)로 디스크를 척추신경과 분리시키는 치료를 한 후 디스크 돌출 상태에서 손상을 입은 신경과 심한 통증은 본 병원의 특수 디스크 침법으로 각 증상에 따른 혈자리에 시침하여 통증 및 당기고 저리는 증상까지 말끔히 치료하며(디스크를 척추신경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술요법은 잠시 통증만 호전되는듯 하지만 대부분 다시 재발하는경우가 많음) 또한 본병원만의 특수 한방요법으로 그동안 디스크로 인해 정체되었던 어혈들을 풀어주고 맑은피와 산소를 원활하게 순환시켜 인체 및 모든 장기가 제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활력을 주며 또한, 약화되었던 인대와 근육을 강화 시켜주는 운동요법 등으로 손상받은 신경까지 치료 함으로서 효과 및 치료 속도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 이동희 척추신경 병원

### LA 지역

Tel: 213-383-0007 / Fax:213-383-0019  
3242 W. 8th St. #100 LA, CA 90005  
(8가 동서호텔 옆)

### OC 지역

Tel: 714-539-1302 / Fax:714-539-6500  
13151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3  
(22번 Freeway + Brookhurst St.)

# 뉴욕전도협의회, 신임 회장 김희복 목사

## 부회장에 황영진 목사

뉴욕전도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7일 오전 만국교회(담임 김희복 목사)에서 개최, 이날 신임 회장에는 김희복 목사, 부회장에는 황영진 목사가 선출됐다.

전체 회원 28명 중 16명 출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회칙 제3장(임원 및 분과위원) 제8조(임원)에 고문을 임원에서 빼는 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나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 임원회를 통해 회의 후 상정하기로 했다. 고문은 뉴욕전도협의회 전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날은 제2장(회원) 제4조(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에 등록된 교



뉴욕전도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지난 7일 개최, 회장은 김희복 목사, 부회장에는 황영진 목사가 선출됐다.

회로서 본회에 가입된 목회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를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로 바꾸는 안이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올라온 제4장(회의 및 선거) 제14조(선거) '재정

감사는 2인을 선출하되 최다점순위로 한다'를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관련 항목을 다른 항목에 더 추가하는 것으로 더 연구. 보완해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뉴욕전도협의회는 2010년도 수입 \$34,096, 지출 \$33,417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총회 전 개최예배는 허윤준 목사(총무)의 기도, 안승백 목사(회계)가 기도, 이희선 목사(회장)가 설교, 박성원 목사(서기)가 광고, 김영환 목사(직전 회장)가 축도했다.

(오상아 기자)

## 이민 1세, 자녀 사랑의 기술 회복해야

미국 내 대학 재학생의 자살은 1년에 1,100명에 달하고 자살은 대학생 사망의 2번째 원인이며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은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라고 한다.

2010년 6개월 사이 한인 학생 1,000명이 재학 중인 코넬대에서만 6명이 자살했는데 이는 100,000명당 38명(세계 1위 1,000명당 0.36명)이 자살하는 한국 내 평균의 33배가 넘는 놀라운 일이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해 한인 자살자 4명이 모두 대학 생들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밴쿠버 총영사관에 의해 전해졌다.

하는 대학생 자녀의 자살에 관한 뉴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동부생명전회는 제3차 초청공개세미나를 이수일 박사를 강사로 5일 구세군뉴욕한인교회(담임 김종우 사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생 자녀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 소중한 내 자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진행, 이수일 박사는 자녀의 성격, 부모와의 불화, 실연, 학점, 취업 등이 우울증의 주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부모가 자신에게 사랑해서 공부하라 한다고 이해하기 전까지 자녀에게



제3차 미동부생명전회 초청공개세미나가 이수일 박사를 강사로 5일 구세군뉴욕한인교회에서 진행됐다.

2006년 대학생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50%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주 우울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조차 알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성인인 대학생의 사적 개인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대학 당국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키워 놓았다고 생각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수일 박사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부모의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경계(Boundary)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감정적인 지원(Emotional Supporting)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수일 박사는 "이민자 부모들이 이민 생활의 애환이 많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성공적인 교육'에 높은 기대를 거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것을 애정적(Affection)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아 기자)

## 나눔의 손길 더 멀리

히스패닉 복음화 대회가 나눔과기쁨(미동부지역 상임대표 김수태 목사)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일기 목사)주최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김 목사가 얘기하는 히스패닉 크리스 교회는 김희복 목사가 설립한 주찬양교회로, 이번 복음화 대회에는 이틀간 전체 참석 인원 220~300여 명 중 절반

피입해왔다"며 "10년 전부터 길 거리에 있는 히스패닉들을 초대해 복음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던 중 이번에 나눔과기쁨과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음화 대회 기간 주최 측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첫째 날은 스킨 500개, 둘째 날은 장

### 히스패닉 복음화 대회 이틀간 220~300여 명 참여

목사)에서 7일과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됐다.

김수태 목사는 "히스패닉 크리스 교회를 세워주고 여러 교회가 협력해 더욱 히스패닉 크리스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넘는 150여 명의 성도가 주찬양교회에서 참여했다.

김희복 목사는 "교회 성도들, 노던 블러버드에 나와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히스패닉들, 잭슨 하이츠, 우드사이드 지역에 있는 히스패닉들을 밴(Van) 4대로

감 500개를 선물로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 강사인 폴서 목사(4 Christ Mission 대표)는 목이 쉬도록 열정을 다해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했다.

(오상아 기자)



히스패닉 복음화 대회가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열렸다.

## "Mission ~ 정제된 신앙을 극복하라!"

오는 18일(금) 오후 7시, 19일(토) 오전 9시 애난데일 소재 미드웨스트유니버시티(Midwest University)에서 '영적 도약의 경험'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된다.

강사는 전 대전 침례신학대학 강사이자 디모데 성경연구원 총무였던 손기성 목사(은혜장로교회 담임, Worldteach 강사)가 나선다.

세미나 관계자는 "이 자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을 마련하신 인생 최고의 단계를 향해 도약하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자리"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이 세미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있고 성장하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생생한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드웨스트유니버시티 주소 : 7535 Little River Tnpk. #325-C, Annandale, VA 22003  
문의 : 703-309-9568

(조요한 기자)

www.rosehills.com

#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기쁘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프리웨이에서 가까운 편리한 로케이션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 ▶LA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한인장례매너저의 친절한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b>갈릴리션교회</b>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백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b>감사한인교회</b>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집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b>갓스윌연합교회</b>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여성성경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부 오후 8:00 4부영아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b>그레이스웨이브교회</b>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중교동부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1130 N. East St., #22 Anaheim, CA 92805 T. (714) 991-9881 / (714) 699-021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b>나성한인감리교회</b>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b>남가주광염교회</b>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b>남가주동신교회</b>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b>남가주명성교회</b>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b>남가주빛내리교회</b>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b>뉴월드임마누엘교회</b>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b>대양장로교회</b>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b>대흥장로교회</b>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고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학교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b>들로스교회</b>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오전 6:00(토) 수요예배 오후 8:00 중/고 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b>드림교회</b>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b>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b>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b>미주비전교회</b>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http://www.visioncc.org	<b>미주성산교회</b>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b>베델한인교회</b>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광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b>삼성장로교회</b>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b>소중한사람들</b>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더론 47) Crocker St.) 1부기도회 오전 7:00 2부선교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b>새생명오아시스교회</b>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b>세계성경장로교회</b>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b>세계소망교회</b>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b>세리토스장로교회</b>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b>시온성증양교회</b>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b>써니사이드교회</b>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금요일 영아예배 오전 10시 오전 5시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b>아름다운교회</b>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수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b>엘바인침례교회</b>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b>영광빛복음교회</b>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b>영성장로교회</b>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rcoc.com	<b>은혜한인교회</b>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b>인랜드교회</b>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b>주님세운교회</b>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b>주님찬양교회</b>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b>청운교회</b>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b>충현선교회</b>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b>코너스톤교회</b> 담임: 이종웅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b>파사데나장로교회</b>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삼/목)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b>함께하는교회</b>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b>SL 임마누엘선교회</b>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이광선 목사 “나도 금권선거 장본인... 이젠 바뀌어야”

이광선 목사가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회 총회 속회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의 금권선거를 비판하며, 자신도 지난 대표회장 선거에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한기총 금권선거 의혹은 이전에도 수없이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이를 고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9일 오전 자신이 당회장으로 시무하는 서울 약수동 신일교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국교회에 드리는 참회와 호소의 글’을 발표했다.

이 목사는 글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처음 출마했을 때 ‘양심과 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며 “그러나 결과는 절반의 지지에도 못 미치는 쓰라린 패배였다. 이후 ‘주여, 내년에는 흠탕물에 빠져서라도 대표회장이 되어 한기총의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주위에서도 ‘목사님, 이번에는 남달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금권선거를 추방할 제도개혁을 꼭 이루십시오’라고 말했다”며 “그 후 압도적 표차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

됐다”고 그 역시 금권선거를 자행했음을 시인했다.

이 목사는 “통회 자복이 너무 어려웠다. 죄의 고백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이 빗발치지 않을까



이광선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금권선거에 대한 개혁의지를 피력하며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부끄러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당선 후 이같은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한기총 개혁에 매달렸

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표회장이 되자마자 정관, 시행세칙, 선거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행위원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금권선거는 한기총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 기자회견 열고 한기총 개혁 의지 밝혀

있었다”며 “그러나 개혁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이해 부족, 이해관계, 집단 이기심 등에 휘말려 (개정안) 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 목사는 또 “(금권으로) 선거에서 이겼으니 나 역시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리고 잘못된 선거풍토를 고치지도 못했으니 정말 나설 자격이 없다”며 “그러나 한기총의 굵아터진 자리에 새 살이 돋는 것을 보고 있다. 젊은 목사들의 개혁 의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기총에도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한기총 금권선거에 대한 강한 개혁의

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는 교회 지도자들이면 누구나 한번씩 거쳐가기를 원하는 명예의 자리일 뿐이다. 깨끗한 선거를 하면 반드시 패배하는 것이 한기총의 현재 선거풍토”라며 “한기총 대표회장이 교회 목사나 교단 총회장들이 은퇴 전 거쳐가는 명예직이 되면 안 된다. 임기도 2년 단임제를 주장한다. 1년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고 개혁운동에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손을 잡고 한기총 개혁에 함께 나설 수 있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도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또 기도회 후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도모임’을 결성, 기도운동과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유럽 선교, 절망적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영국에서 1년을 보내며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본 한 목회자가 존 스토틀 목사에게 심히 실망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당신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존 스토틀 목사가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노력은 영국 사회와 교회의 문화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탄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국교회의 문화적 약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시도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전 돌로스 선교선 단장 최중상 선교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린 유럽선교 컨퍼런스에서 역설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 돌로스 선교선 단장이자 런던 바이블칼리지 연구교수로 유럽의 재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최중상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유럽 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Mission Europe(프랑스 예수님의 마을) 주최로 7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유럽 재복음화와 이슬람선교’를 주제로 진행되는 유럽선교컨퍼런스 첫번째 강사로 나선 최 선교사는 “유럽의 현 추세가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유럽을 그냥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교회, 아직 희망은 있다”는 최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중점적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구체적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유럽상황의 홍보와 유럽을 위한 기도운동’이다. 최 선교사는 유럽선교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교회 교회의 인식부족 ▲가장들이 시도해

는 것을 우습게 보는 사회 분위기 등을 꼽으며 “무엇보다 유럽이 이제 선교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회개혁학교를 통한 개혁운동’을 둘째로 꼽은 최 선교사는 “교회를 몇 개 개혁하는 것보다, ‘교회개혁학교’를 세워 집중적으로 준비된 교회개혁자들을 길러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무목(無牧) 영국교회에 한인 목회자 공급’을 꼽았다. 그는 “영국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수가 남아있는 교회에 비해 모자란다. 한 목사가 3~5개의 교회를 돌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7~8개 교회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며 “비전과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한인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과 강한 영성으로 영국교회에 새로운 사역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인 목회자가 영국교회에서 사역하려면 한국에서 받은 성직을 해당 영국교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국의 교단과 신앙노선이 같은 영국교단이 동반자 협약을 맺어 교단적 차원에서 협력 목회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과제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선교사는 ‘유럽선교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최중상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유럽이 간절히 우리를 부르는 ‘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며 강의를 마쳤다.

(송경호 기자)

# “운동주, 박두진... 기독교 문인들 더 발굴해야”

## 14년째 기독교 문예지 ‘창조문예’ 발간 임만호 장로

지금 보이는 물건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지식과 상상력, 이야기 무한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문화 콘텐츠의 시대다. 기독교 문화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그 중에서도 시와 소설 등 문학은 명함조차 내밀기 부끄러운 ‘마이너’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올해로 14년째 기독교문예지 ‘창조문예’를 발간하고 있는 임만호 장로는 이들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창조문예는 ‘문학을 통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발간 이념으로 지난 1997년 2월 창간돼 지금까지 총 150여명의 작가들을 배출했고 이제껏 단 한 번도 결간된 적이 없는 기독교 대표 문예지다.

기독교인들은 도서와 문화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성경 교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시는 거의 시편의 범주에 들어야 하고, 동화는 성경의 인물이나 주

제에 국한되어야 하고, 소설 역시 성경적인 테마를 다루거나 간증 문학 정도를 기독교 작품으로 인정한다. 문학적 상상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는 출판시장에서 그 범주를 넘어서는 책이 거의 팔리지 않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국내에서는 특히 기독교 소설의 씩이 거의 자라지 못했습니다. 문학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건조하고 텅텅 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은 음악이 기독교 문화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활자 매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문학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람도 역시 거의 서양인입니다.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특유의 환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문학은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정서의 숲이다. 다양한 시가 창작돼야 아름다운 찬양과 생활의 노래가 작곡되어 불릴 것이다. “문학의 거성들을 보면 기독교인의 의외로 많습니다. 운동주, 주요한, 김현승, 박두진, 박목월 등... 교회가 묻혀있는 문인들을 발굴하고, 기독교적인 글을 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김진영 기자)

# 여드름 고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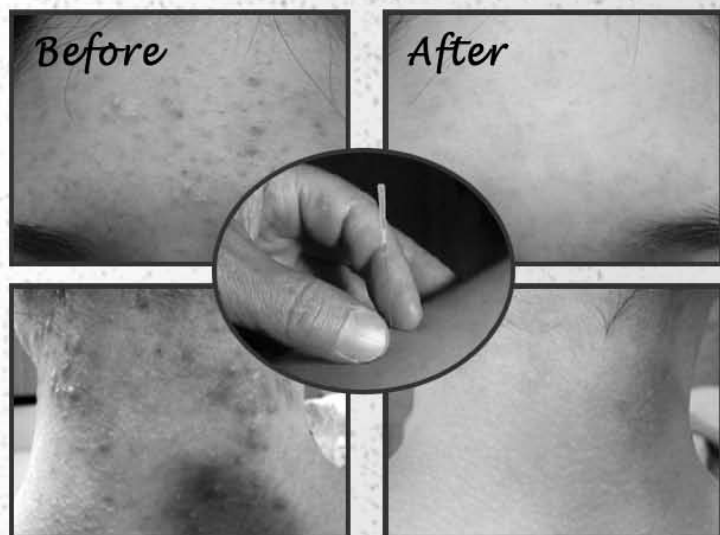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 극심한 정체 겪는 서울 4대문 안에서 성장 거듭

### 제자훈련 통해 젊은이 물려오는 장총교회

서울의 자랑인 남산, 남산의 동쪽자락에 유서 깊은 장총단 공원이 있다. 바로 그 맞은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장총교회(담임 남창우 목사)가 새로운 교회당을 완공하여 2011년 2월 12일 역사적인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57년 전인 1954년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남하한 피난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장총교회는 보수적 장로교회다. 위치적으로 보아선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크게 부흥하여 새로운 교회당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간이 부족했다.



남창우 목사.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특히 장총교회가 위치한 서울의 중심부, 4대문 안에는 180여 교회가 현재는 80여 교회로 줄어들었다. 마치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의 공동화, 노령화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사실 장총교회도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2,300대의 청년층이 50%를 넘는 교회로 변모했다. 새로 지은 교회당 건물도 예사롭지가 않다.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기사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담임 목사를 찾았다.

1996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장총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한 남창우 목사(59세)는 기자와 만나 자마자 교인들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 목사가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장총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당시 사랑의



글로리아 홀(콘서트 및 소형집회실).

교회 담임이던 옥한흠 목사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교회는 회의보다 양육이, 행사보다 복음이, 교리보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창우 목사는 부임 첫 해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제1기생이 장로들이었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정기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주일 숙제를 해야 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내야 했다. 장로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소리 없는 변화가 감지됐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당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더욱 섬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장총교회 제직들의 대다수가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자훈련 다음으로 중점을 둔 사역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



지역주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다.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 그리고 열방을 복음화할 일꾼을 키우는 일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다. 젊은이 선교위원회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독려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에 힘을 쏟았다. 남산타운 아파트 입주 때 ‘물통전도’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한 여름철에 입주하기 때문에 교회 수양관의 양질의 생수를 공급

하며 전도를 한 것이다. 교육과 선교에도 힘을 쓰고 소그룹인 순모임을 통하여 성도간의 교제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매년 가을에 하는 ‘새 생명 축제’와 목회자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주일학교의 교육 공간이 모자라 부득이 남산타운 내 상가를 300평 매입하여 교육관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차 공간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주차 공간, 교육 공간, 예배 공간이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21세기 교회가 해야 할 새 사명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처음 교회당을 짓는 의견을 내었을 때 장로님들도 선택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당회원 가운데도 ‘벌췌한 교회 왜 허물려고 하나?’ ‘교회

당 지을 돈은 어디서 나오나?’ 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출발이 쉽지 않았습니.” 그러나 남창우 목사는 ‘새 시대, 새 사명, 새 교회’란 표어를 걸어놓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역설하며 교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 주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2003년 여름에 당회가 건축을 결의하고 건축위원회를

조직했다.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도들 마음이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소망관(별관)을 먼저 짓고 은혜관(본관)을 이제 완공하여 입당하게 된 것이다. 건축 계획에서 완공까지 7년 반이 걸렸다. 그 기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셨다.

### 한국교회 최초로 ‘새집증후군’ 없는 에코처치 건축

건축위원장이 장근조 장로(66세)는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건축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다”며 “그러나 이제 입당을 앞두고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면서 당사를 회상했다. 그는 30년 동안 친환경 건축 마감 재료를 취급하는 회사(리빙스톤)의 대표로 있으면서 사육의 한 층을 선교관으로 내놓고 11년째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있기도 하다.

“장총교회를 처음 지을 때 어떤 건물로 지으려고 하셨느냐”는 질문에 장 장로는 “첫째로 모든 건축물이 그렇듯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 방침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당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웃 주민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장총교회는 아치형 2동의 크고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외장은 녹색의 산화동판과 유리로 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남산의 한 모퉁이 같기도 하다. 독수리의 두 날개, 환영하는 두 팔, 제자 훈련을 하는 스승과 제자, 기도하는 두 손, 하늘 향해 열린 문을 연상하기도 한다.

(김은혜 기자)

## 스캇 브래너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예배자 되려면..”

스캇 브래너 목사가 인도하고 레위지파가 주최하는 ‘레위지와 예배인도 자학교’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초동 베토벤하우스와 삼성동 야마하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스캇 브래너 목사가 직접 인도

인 내용들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예배자들은 단지 표면적인 행동 양식만을 얻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과 자세, 그리고 신학적인 기준들을 함께 배워 나간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현재 섬기는 교회 상황에 따라 송리스트의 순서는 어떻게 정할지, 각각의 상황에서 예배팀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예배팀이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기쁨부임이 흘러가도록 할지 등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스캇 브래너 목사의 대담



스캇 브래너 목사

하는 예배로 시작되는 강의는 현재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예배사역자들을 비롯해 교회학교 예배를 인도하는 어린 예배인도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예배인도자학교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 전, 먼저 ‘예배함’으로 예배인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시작한다. 스캇 브래너 목사가 첫 강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예배인도자는 먼저 ‘예배자’여야 함을 배웠기 때문. 수업은 스캇 브래너 목사의 저서 ‘실제적인 예배 인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스캇 브래너 목사는 이 책에서 예배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는 음악적 기술과 기쁨부임이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도자의 ‘성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캇 브래너 목사는 강의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배 인도의 지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예배자들이 알아야 할 본질적

은 신학적이고도 본질적으로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인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제안까지 이어진다.

이번 예배인도자학교를 위해서 서울, 경기에서부터 강원, 부산, 창원까지 곳곳에서 모인 예배인도자들은 온라인에서 예배인도자 커뮤니티(club.cyworld.com/levitribe)를 형성하여, 강단 위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나누고 있다. 스캇 브래너 목사는 “이번 예배인도자학교를 통해 이러한 열정이 한국 전체에 퍼져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면서 “오는 26일부터 동일한 형식의 예배인도자학교가 부산에서도 개최된다”고 전했다. 예배인도자학교는 5주의 시간동안 10개의 강의와 함께 집중적인 훈련이 이어진다. 홈페이지: www.leviworship.com (이미경 기자)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I -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문예창작,종교음악,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월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meduniv.org

### 김세환 칼럼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병서(兵書)라고 불리는 <손자병법>(孫子兵法)에는 “주위상(走爲上)”이라는 전술법이 등장합니다. 소위, 서른여섯 번째 전술이라 하여 “36계 줄행랑”으

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이미 절반은 패배한 것이기에 좋은 전략은 못됩니다. 차라리 빨리 도망을 쳤다가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되돌아 볼 것을 권하는 이 손자병법 36번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도 중요한 “삶의 전술”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급합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모든 것을 단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관

### 주위상(走爲上)

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어로 잘못 번역된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곱곱이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주위상”하는 정신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절한 때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전략 전술입니다. 도망을 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적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는 것인데, 이것은 하책(下策)입니다. 둘째는, 일단은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훗날을 도모하는 중책(中策)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망쳤다가 생각과 감정을 추스르고 전열을 다시 정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분노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임전부퇴의 정신으로 싸우다가 죽으면, 영웅처럼 보일지는 모르겠

조(觀照)하는 정신은 털끝만큼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수틀리면 다 뒤집습니다. 즉흥적이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거부당하면, 뒤집어엎을 생각만 합니다. 짧은 용사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이미 실력한 용이었던 “사울”을 몰아내고 쉽게 권좌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큰 상을 주지는 못 할망정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살해하려고만 했던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맞서지 않고 정처없는 “떠돌이”가 되어 훗날을 기약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聖君)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주위상(走爲上)”의 정신으로 물러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뜻을 되묻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도 일단은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한번 주변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당신은 웃는 얼굴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찡그린 얼굴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웃는 얼굴을 누구나 좋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루 중 어느 얼굴을 하면서 사십니까?

사람들이나 지구상 누구든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을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얼굴은 순수한 우리나라 언어 얼굴에서 나왔습니다. 얼은 정신,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짙은 모양입니다. 얼얼이란 얼이 쌓인 정신에서 나오는 얼얼입니다. 얼얼이란 영혼에서 나오는 얼굴의 꼴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얼굴  
당신의 영혼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얼굴  
당신의 영혼에 행복이 있으면 행복한 얼굴  
당신의 영혼에 미움이 있으면 분노의 얼굴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얼굴

늘어 집니다. 고대인들이 웃음을 건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 있는 일입니다. 현대 의학이 웃음의 생리적 효과를 규명하기 전에도 이미 웃음은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파한 고대인들의 지혜에 탄복하게 됩니다. 웃음은 말합니다.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웃을 때 온 세상이 나

다.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 죽는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지요. 하루에 3-4만 가지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며 기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낙하산이 공중에 떨어질 때 빠져야 낙하산이듯이 사람은 얼굴

### 웃으면 웃는 얼굴, 찡그리면 찡그리는 얼굴

당신의 영혼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얼굴.

당신은 살면서 어느 얼굴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삶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지요. 삶에 찌든 얼굴, 실의에 가득 찬 얼굴도 있습니다. 미소를 지는 얼굴, 희망찬 얼굴도 있지요. 내 자신이 힘들어 할 때도 상대방이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도 모르게 힘을 얻습니다. 웃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마음 안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얼굴입니다.

웃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4세기의 의사 밀레투스가 쓴 “인간의 특성”이라는 의학 서적에 “웃음은 그리스어로 hele인데(헬렐) 그 의미는 건강(health)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렐렐가 웃는 언어입니다. 한번 웃으면 한번 건강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와 함께 웃는다.” 실제로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짜증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웃고 있으면 세상이 따라 웃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불경기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재난과 두려운 소식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공기를 마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웃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주님의 천국을 갈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천사의 얼굴로 웃으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웃음을 행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

에 웃음이 퍼져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모든 장수마을엔 항상 넘치는 웃음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한번 세상을 향하여 크게 웃어 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참된 즐거움은 예수를 통과할 때 비로써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웃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웃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조국과 미국이 웃는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 조인수 칼럼



조인수 목사  
씨니사이드교회

심상치 않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의 나라인 이집트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30년 철권이었던 무바라크 정권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은 한결같이 이슬람 정권이며서도 친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즉,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나라들의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정권이 들어설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격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다면 제2, 제3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도 원하

운 것은 이러한 나라들의 운명과 석유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중동 국가들이 다수가 되면서 석유를 무기화 시킨다면 세계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그나마 중동 지방에서 종교의 자유를 묵인하는 나라들은 이집트와 요르단이었습니

다. 여기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마저 사려져 버린다면 복음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부패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 종교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매우 불안한 사

### 중동에 부는 바람

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란과 같은 제정일치를 주장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 세계는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양분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미국이나 서방나라들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

다.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을 거점으로 다른 이슬람 국가들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그 거점들이 자칫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서방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서 마음껏 포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슬람 국가에 들

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눈으로 중동에 불고 있는 스산한 바람을 본다면 종말이 가까워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1년에 들어오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닥터 살롬 칼럼



살롬 김 박사
美 웨퍼드대학교

식을 느낄 때 할 수 있다. 이것은 긴 시간을 거치면서 성숙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다른 점이 있다. 지금 죽어 가면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용서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죽어가는 현장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기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씨앗이 계절이 지나면서 충분한 시간과 양분을 흡수한 후

실까?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죽으면 그만인데'라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가해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용서였

었다. 세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이다(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마태복음 6:11) 부분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으실 필요는

어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철저히 육체적이 되었다. 먹고, 마시고, 보다 편하게,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본위적인 삶을 살았다.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으로 승화된 고귀함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섯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사탄이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을 붙잡고 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이어온 육체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사탄을 인간이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보다는 사명의 완수로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키신다. 그리고 스스로 없이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신다. 전 인류와 내가 포함된 용서 이 용서가 죄가 어떤 열매를 거둘지를 모른 채 함부로 죄와 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 암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인류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암호를 해독하지 못한 것이다. 내게 남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암호 해독을 하지 못한 것이다.

크로스 코드 <6>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이 기도의 시점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 또한 이 말씀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천천히 매우 수척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이다. 그리고 이 간구의 내용은 용서이다. 그렇다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간구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형으로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용서를 한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고 아픔의 기억이 약해지면, 그리고 자신의 악함도 기억하게 되면서 용서를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악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남들의 악함과 악함을 동시에 인정하고, 또한 성정의 과정 속에 있는 인류로서의 동류의

에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러나 씨앗이 지금 흙에 심기는 상황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적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간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최악의 고통 속에서, 모든 감각이 고통에 집중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증오와 저주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용서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이 암호가 해독된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용서

상담자로서 내가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자, 용서를 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용서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용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용서를 청하지 않는 이를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쉽게 용서하면 또 그 가해자가 잘못을 행할 악을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

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은 용서였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하였다.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였다.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6가지 용서의 이유

첫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간구하신 의미에는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때 울엄청난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어긴 것에도 큰 징벌을 받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우주 최대의 악에 대한 징벌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었을 것이기에 그러하다.

두번째, 죽어가면서 하신 용서의 이유는 단순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다른 삶이 있기에, 그 삶이 또다른 차원에서 연결되기에 악의 순환을 끊기 위한 용서를 하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매우 중

요하다. 없으시다. 이 주기도문의 공식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간구의 순서는 이렇다. '아버지 저도 제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중보자의 기도였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리이다.

네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에서 기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용서였다. 이 용서를 하기 위하여는 순결하여야 한다. 죄 있는 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의 사명의 완수를 뜻하는 것이다.

다섯번째, 그의 용서는 인간이 육체 그 이상이며, 육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에 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육체적이 되어 고통에 신경쓰기보다는, 영혼으로 깨어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

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철저히 육체적이 되었다. 먹고, 마시고, 보다 편하게,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본위적인 삶을 살았다.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으로 승화된 고귀함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섯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사탄이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을 붙잡고 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이어온 육체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사탄을 인간이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로잡혔다면 그는 다른 죄수처럼 울부짖어야 한다. 아니 죄 없이 고통을 더 큰 소리로 부랑함을 외쳐야 한다. 그리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악에 대하여 응당한 증오와 저주를 외쳐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육체의 논리와 세상적 논리를 거절하셨다. 그 이유는 그 육체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 배후에 있는 사탄의 논리를 아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음으로써 사탄의 전략인 악의 순환에 휘말려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부하셨다. 대신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악의 순환에 대한 음모를 파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수와 순결로 아버지께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육체를 등한시하시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당하였으며 그 육체의 감각적인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 못함으로 더 깊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수렁에 빠진다. 그들은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악에 대하여 응당한 증오와 저주를 외쳐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육체의 논리와 세상적 논리를 거절하셨다. 그 이유는 그 육체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 배후에 있는 사탄의 논리를 아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음으로써 사탄의 전략인 악의 순환에 휘말려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부하셨다. 대신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악의 순환에 대한 음모를 파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수와 순결로 아버지께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신 것이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첫 순교자 스테반이 그러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 원수를 용서하며 뒤에 있는 상처를 잊고 미래를 개척한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들 속에서 교훈을 찾으며 자신과 세상의 악함과 악함을 보며 기도한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의 악을 인내로 이기며 차츰 더 강건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성숙한다. 이것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암호 해독법에 의거해 암호를 풀 때가 되었다.

김영길 칼럼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여러 해 전 일입니다. 카이로를 출발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 중에 바위 협곡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동승하여 우리를 안내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이상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원망은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

가 호렘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마음

아말렉은 언제 출현하는가?

방금 지나온 곳이 르비딤이고 여기 바위계곡 어딘가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호렘산 반석입니다."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사막을 걸어 이곳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더

라 죽게 하느냐?" 모세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것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암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백성들과 싸우려고 르비딤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한번도 전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싸움에 내보낸 후에 온종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흔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후에 사탄이 날을 세우고 덤벼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정하고 시작한 기도가 끝났을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이것입니까? "기도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참 잘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백성들이 아직도 목말라 찢절 맬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증을 해결해주시고 하루 동안 안식을 얻어 쉬게 하신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까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도하고 은혜 받은 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Advertisement for L.A. AUTO 정비 (L.A. Auto Repair). Features include ASE, GM DAEWOO, and State of California Licensed Smog Check. Services listed: Smog Check,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30/60/90K Service, A/C Service. Contact: 24hr 213.247.6657. Address: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Hours: Mon-Fri 7:00-7:00, Sat-Sun 8:00-6:00. Special offers: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 웨이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 743 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불백앵거스 프라이드 갈비살, 갈비, 꽃살  
▶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926.1243 / (213)435.5736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종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LA 케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감자 마역국 \$1.00 (1인당)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 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MR 박은철이 찾아주세요!**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1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 철 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1-800-489-8775

지금 신청하세요!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820-3504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2월 13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 아이토크비비

하사로 **충분**합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자세한 내용은 **1.800.872.2902** 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Korea.iTalkBB.com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에 무제한 국제전화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24.99** /월 TAX포함

---

My Korea Number **무료**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

iTalk Global **무료**  
**아이토크 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Global Unlimited Plus Plan  
**글로벌 + 플랜**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통화!!

**\$34.99** /월 TAX포함

---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하면 선물이 팽팡!!**

행사기간: 2월 28일까지 연장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서 대신 인터넷과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 Box 결제(₩20,000)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0,000의 가입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받은 서비스 혜택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 내 서비스 이용이 없을 시에는 가입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www.korea.italkbb.com)를 통해 029,699가 부가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216**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친구 추천 프로모션은 미추천인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1년 계약 신규 가입에 한하며, 무제한 플랜은 제외됩니다. 친구 추천을 1명 하신 경우는 추천인과 피추천인 중 낮은 플랜으로 1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 2011년 새봄맞이 세일



2011 완전 새로워진  
쏘나타

**\$179** (PLUS TAX, 3YR LEASE, TDO \$2,999, 12K MILE/YR, LOYALTY REBAT \$500 VIN # 212326)



2011 대형 세단의  
편안함 제네시스

**\$299** (PLUS TAX, 3YR LEASE, TDO \$4450, 12K MILE/YR, COMP. REBAT \$1500 VIN # 135719)



2011 크로스오버의  
강자 투싼

**\$199** (PLUS TAX, 3YR LEASE, TDO \$3199, 12K MILE/YR, REBAT \$500 VIN # 121098)



2011 귀여운 소형  
세단 엑센트

**\$11,900** (INCLUDE REBATE HMA 500, HMF 1000, COLLEGE 400, MILITARY 500 VIN # 200976)

##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 2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1,699



2007 HYUNDAI AZERA  
BLACK STK P185167 \$15,999



2010 HYUNDAI ELANTRA  
RED STK P975481 \$13,999



2009 HYUNDAI GENESIS  
BLUE STK P029231 \$28,990



2010 HYUNDAI SONATA  
TAN STK P591753 \$13,999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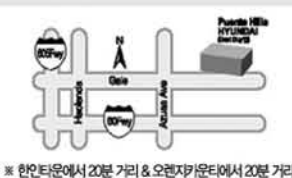
- ▶ 2009 ACURA TSX GRAY #196587A
- ▶ 2007 BMW 328XI BLACK #PP31167
- ▶ 2006 BUIC LUCERNE RED #121938A
- ▶ 2007 HUMMER H3 YELLOW #P126552
- ▶ 2008 HYUNDAI AZERA BLACK #P332058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9231
- ▶ 2009 HYUNDAI GENESIS GRAY #P046436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767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532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P270753
- ▶ 2010 HYUNDAI SANTA FE RED #P343949
- ▶ 2010 HYUNDAI SONATA COCOA #P601361
- ▶ 2010 HYUNDAI SONATA WHITE #P598307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P057661
- ▶ 2009 KIA SEDONA GRAY #P296190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국어 상담  
제니킴  
☎ 888.644.7114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